

학생 복지예산 빼돌린 교사 교단서 퇴출

학교 생활이 힘든 학생들에게 사 용해야 할 복지예산을 빼돌린 초 등 학교 담임교사가 중징계 처분을 받 아 교단에서 퇴출됐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교 육청 징계위원회가 전날 회의를 갖 고 희망교실 예산 50만원을 유용한 모 초등학교 담임교사 A(여)씨에 대해 배제징계인 해임 처분을 결정 했다.

배제징계란 중징계 중에서도 가 장 처벌수위가 높은 것으로 교단에 서 퇴출되는 해임과 파면 처분이 예 당한다.

광주시교육청, 유용 교사 해임 처분 “액수 적지만 죄질 좋지 않아 경중”

또 징계위원회는 징계부과금 150 만원을 부과하고 A씨가 쟁건 토요일 초과근무수당 18만원도 회수 조 치했다.

징계위원회 관계자는 “비록 유용 한 액수가 적다고 해도 어렵고 힘든 아이들을 위한 희망교실 사업비를 유용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벌로 경 중을 올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초 포래 상담 이나 레크리에이션, 사제동행 의식 문화 체험, 물품지급 수호천사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신청해 교육청으로부터 받은 희망교실 사 업비 50만원을 유용한 것으로 드러 났다.

A씨는 사업비로 남편 안경을 구 입하고 자신의 집에서 먹을 피자를

구입하는 등 모두 사적인 용도로 사 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희망교실은 생활형편이 어렵거나 학교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교사가 멘토로 나서 지원하는 광주시교육청의 대표적인 교육복지 사업이다.

광주시교육청은 지난해 1, 2차에 걸쳐 8839개 희망교실을 선정했으며 총 32억2780만원을 지원했다.

A씨는 광주시교육청 징계위원회 처분에 불복한 경우 교원소청심사 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조인호 기자

보성서 빙판길 버스·탱크로리 충돌

16일 오전 7시50분께 보성군 노성면 녹차시험장 주변 편도 1차선 도로 에서 임포(49)씨가 몰던 1.5급 탱크로리와 진포(46)씨가 운전하던 군내버 스가 충돌했다.

이 사고로 탱크로리 운전자 임씨와 김모(81)씨 등 버스 승객 11명이 경 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곡선으로 굽은 도로가 얼어붙은 상황에서 버스가 미끄러져 마주 오던 탱크로리와 충돌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보성=안구일 기자

70대 노인 태백 한 아파트서 투신 숨져

16일 오전 7시55분께 강원 태백시의 한 아파트에서 A(70)씨가 투신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동네주민의 신고로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아파트 화단에 쓰러져 있는 A씨를 발견해 응급처치를 했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목격자와 지인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만취해 지인과 행인 폭행한 20대들

술에 취해 지인과 행인을 폭행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1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2)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일당 5명을 쫓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3일 오전 2시30분께 익산시 신동 한 도로에서 B(22)씨 등 5명을 주먹과 발로 수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에 취한 이들은 B씨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폭력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 6명은 B씨 일행 5명과 사회 선후배 관계로 평소 사이가 좋지 않 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일부는 심하게 다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행인 신고로 경찰이 출동해 A씨를 검거했지만 나머지 5명은 도주했다.

더구나 이들은 도주를 하면서도 행인 C(25)씨를 B씨 일행으로 오인해 또다시 폭력을 휘둘렀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잘 기억이 나지 않는다. B씨 등이 일방적으 로 어깨를 부딪쳐서 싸우게 됐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도주한 나머지 5명을 검거해 사건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다.

택시기사 약점 잡아 돈 뜯은 50대 영장

부산 사상경찰서는 16일 택시기사를 상대로 불법 호객행위를 신고한다 고 협박해 돈을 뜯은 A(54)씨에 대해 공갈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1월 말까지 부산 사상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앞에서 택시기사 9명에게 손님 소개비 명목으로 모두 48차례에 걸쳐 200만원 상당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조폭과 친분을 과시하며 택시기사들에게 불법 호객행위를 신고하 라고 협박해 돈을 뜯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수괴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것이고 갈취 사실은 없 다며 혐의 일부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남 오피스텔서 남녀 4쌍 중 여성 1명 사망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있던 남녀 4쌍 중 30대 여성 1명이 사망 하면서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를 의심해 수사에 들어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30대 남 성 4명과 여성 3명 등 총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3일 오후 7시25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어울리며 마약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과 동행한 30대 여성 1명은 호흡곤란 증세를 보인 끝에 병원에 호 송됐으나 사망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사 신고를 받아서 갔는데 일행 중 일부로부터 마약 투약 의심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고 받아간 현장에 마약이 남아있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뉴스



해군 특수부대 평창올림픽 대테러 대응 훈련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개막을 23일 앞둔 16일 해군 제1함대사 령부 3특전대대(UDT/SEAL) 특수부대원들이 강원 강릉시 강릉항에 서 올림픽 안전과 관련한 대테러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폭설에 찍힌 발자국’ 수천만원 절도범 검거 결정적 역할

광주에 내린 폭설에 새겨진 발자 국이 수천만원을 훔친 30대를 붙잡 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광주 동부경찰서는 16일 빈 상가 에 들어가 현금 2000만원을 훔친 혐 의(절도)로 서모(39)씨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씨는 지난 11일 오후 8시45분 계 광주 동구 박모(54·여)씨가 운 영하는 철물점에 침입해 5만원권 400매, 20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 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서씨는 지난 2016 년 2월 같은 혐의로 출소했으며 특 별한 직업없이 철물점에서 1km 정 도 떨어진 모텔에서 거주하고 있었 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 서씨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철 물점에 CCTV가 없는 것을 확인하 고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

혀졌다.

서씨는 광주에 내린 폭설로 인해 거리로 인적이 드물고 피해자가 되 근한 틈을 노려 이같은 짓을 저질 렀다.

서씨는 훔친 현금 중 500여만원 을 유용비와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폭설을 기회로 보고 절도행각을 벌인 서씨의 범행은 폭설로 인해 불거졌다고 밝혔다.

절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밤새 내린 눈에 찍힌 발자국을 토 대로 수사를 벌였다.

발자국이 철물점 담장 인근에 어 지럽게 찍혀있고 인근의 모텔로 향 한 점을 파악한 경찰은 탐문수사를 벌여 5일만에 서씨를 긴급 체포했 다.

경찰은 서씨가 훔친 현금 2000만

원 중 1500만원을 회수해 피해자에 게 돌려줬다.

서씨는 경찰 조사에서 “10만~20 만원 정도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큰돈이 나오자 황재했다고 생각했 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부서 김관술 강력팀장은 “피 해자가 아들 유학자금으로 사용하 기 위해 조금씩 모아 놓은 돈을 잃 어버렸으며 울며 하소연 했었다”며 “5일만에 범인을 붙잡아 대부분의 돈을 회수해 돌려 주니까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 했다”고 말 했다.

이어 “피의자도 자신의 예상보 다 많은 돈을 훔치니까 당황해 빨리 숨기기 위해 곧바로 속소로 돌아간 것 같다”며 “철물점에 CCTV가 없어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이 있었는데 광 주에 내린 많은 눈이 CCTV 역할을 대신했다”고 덧붙였다.

여직원·단골 고객 추행 남성 2명 징역형

‘블루스를 추자’며 자신의 보 호·감독 아래 있던 여직원을 추 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과 인마실 에서 단골 고객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각각 징역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1단독 강규태 판사 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한 숙박 업소 간부 직원 A(40대 중반) 씨에 대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40시 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를 명령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판사는 “A 씨가 자신의 지위 를 이용, 20대 초반에 불과한 여직 원을 특정 장소로 데려가 ‘블루스 를 추자’는 핑계로 추행했다. 이는 사회 초년생인 피해자를 성노리개 로 삼은 것이나 다름없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일침했다.

이어 “추행의 정도도 결코 가볍 지 않다.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 해 피해자로부터 합의서를 작성받 고 지위를 숨기려 온갖 수단을 동 원하는 등 범행 뒤 태도도 매우 나쁘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가 이 사건 때문에 일 하던 숙박업소를 그만둔 뒤 잡다 잡다 못해 결국 고소에 이른 것으 로 보인다. 피해자가 느꼈을 성적 수치심과 분노, 억울함은 글로 표현 하기 힘들 정도였을 것으로 보인다”며 A 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했 다.

주준정 기자



KFS 한국농어촌공사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 농지매입비축사업
- 농지임대수탁사업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농지연금사업
- 농지규모화사업

fb

농어촌 행복파트너 농지은행사업

농어촌의 행복에 지지 않는 별이 되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농어민들이 지금보다 더 큰 행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농지은행은 영농개시에서 은퇴까지 든든하게 지켜드립니다

- 2030세대 농지지원사업**
20~39세 창업후계농에게 5~10년 장기임대차, 장기저리(3.0%, 1~2% 농지매입자금 용자 지원)
- 농지매입비축사업**
고령은퇴 이후 농업인 농지 매입비축을 통해 농지시장 안정 도모
- 농지임대수탁사업**
자력 어려운 농지소유자 농지의 임대를 위탁받아 전문농에게 5년 이상 장기 임대
- 경영희생지원 농지매입사업**
자연재해 피해 등 경영위기 농가의 농지매입 후 10년간 임대보장, 경영 정상화 지원
- 농지연금사업**
65세 이상 고령농업인 농지담보로 매월 연금처럼 생활안정자금 지급
- 농지규모화사업**
농지매입 임대차 교환분할을 통한 농가의 영농규모 확대 지원